

구 모지 세관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구 모지 세관은 모지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국제 무역항이 있는 모지에는 세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1889년에 나가사키 세관의 지서가 모지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모지의 선박 교통량이 나가사키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1909년에 지서는 확장되어 정식 세관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모지 세관은 1910년에 전소되었고, 현재 있는 벽돌로 된 건물은 1912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구 모지 세관은 1945년의 모지 공습으로 지붕이 파괴되어 오랫동안 판자가 쳐진 채 비어 있었습니다. 1991년부터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어 1995년에 모지코 레트로 역사 지구의 일부로 재개장했습니다. 현재는 제철 과일을 사용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카페와 세관의 홍보전시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련된 공공 공간이자 지난 시대의 불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의 설계는 메이지 시대(1868~1912)의 저명한 건축가 쓰마키 요리나카(1859~1916)가 감수했습니다. 네오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돌출된 도머창과 지붕을 따라 있는 석조 코니스, 내부의 샹들리에 등에 그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벽은 과거 하얀 회반죽으로 덮여 있었으나 후에 벗겨지며 그 아래에 있던 10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오리지널 벽돌 구조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벽을 자세히 보면 벽돌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탄화된 목재가 끼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재들은 문과 창문의 틀을 못으로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벌레와 부패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탄화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번영했던 항구의 모습

건물의 크기와 화려한 장식은 모지 항구가 과거 굉장히 번영했음을 보여줍니다. 모지는 어부와 소금 제조 장인들이 살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는데, 1889년 석탄 등의 특별 수출항으로 지정되면서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1896년에는 일본 굴지의 석탄 수출항이 되었고, 그 해에만 약 58만 톤이 모지에서 출하되었습니다. 모지는

1899년에 완전히 개항되었으며, 1907년에는 일본으로 수입하는 중요 물자의 20% 이상을 모지 항구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세관

건물 1층에 있는 전시실에서는 다양한 밀수 수법과 밀수를 막기 위한 대책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법 약물과 약물 밀수 수법(신발, 샴푸 병, 조각상 속 등), 몰수된 동물 유래 제품의 예시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3층 전망 공간은 바다에 접해 있어 간몬 해협을 오가는 배와 도개교가 잘 보입니다.